

미코바이오메드, 코스닥 상장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

- ▶ 랩온어칩(Lap-on-a-Chip) 기술 기반 바이오 의료 진단 전문기업
- ▶ 진단 사업부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, 코로나19 진단장비 수요 증가로 기업 가치 ↑

<2020-08-04> 바이오 의료 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미코바이오메드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2,500,000주, 희망 공모가 밴드는 12,000원~15,000원이다. 총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기준 300억 원 규모다. 오는 19일과 20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, 25일과 26일 청약을 실시해 9월 초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다.

미코바이오메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분자진단, 생화학진단, 면역진단 등 세 개 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솔루션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. 원천 기술인 '랩온어칩(Lap-on-a-Chip)'을 기반으로 진단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꼽히고 있다.

현장진단(POCT)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'랩온어칩(Lap-on-a-Chip)'은 박테리아,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 증폭, 진단하는 혁신 기술로 신속·정확·경제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.

미코바이오메드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분자진단장비와 키트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.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'K-방역'에 대한 전 세계 주목도가 높아지며,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

이미 유전자증폭 검사법(RT-qPCR)을 적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유럽 CE 인증 및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을 완료한 상태로, 유럽 및 아시아,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. 실제 코로나19 관련 장비와 시약 매출 217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기업 볼륨이 커지고 있다. 지난 6월 美 FDA EUA 승인전 판매 허가 획득을 비롯해, 판매 범위가 지속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코로나19 진단 장비 및 시약의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.

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는 "기존 주력 비즈니스인 생화학진단 사업 외에 분자진단, 면역진단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며, 올해 큰 폭의 외형성장을 자신한다"며 "세상을 열어가는 지표가 되겠다는 경영이념을 가슴에 새기며, 진단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"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

▣ 자료문의 : 미코바이오메드 정효윤 부장
IR큐더스 이진영 수석

070-5227-6011
02) 6011-2000(#138)